

# 西海岸에서 ‘맛살’을 캐며

閔 世 烈 (會 社 員)

「통, 통, 통 ……………」

나즈막한 고깃배 한척이 바다를 가르며 미끄러져 간다.

낮을 내린 크고 작은 漁船들이 갯마을 어귀에 매여 있다. 옆으로 귀우뚱해져 배밑에 이끼가 파랗게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시꺼먼 기름옷 차림에 갑판을 오르내리는 뱃사공의 모습도 눈에 된다. 約 5時間 半동안 旅路를 통해 얻어진 어느 浦口의 첫 印象이다.

海岸線이 漁村을 끼고 S字型으로 돌아 놓는다. 바다가 곧 발아래라 갯바람이 내다말린 그물에 휘감긴다.

배가 닿는 곳은 으레 선술집이 흥청대기 마련인데 갯바람만 쏘일뿐 한산하기만 하다.

바로 여기가 瑞山海岸 우리가 目的한 갯마을임을 쉽게 짐작하게 된다.

業務의 性格을 띤 探訪이어서 다소 짐스러운 感도 없질 않았지만 暴炎에 끈적한 아스팔트를 벗어나 모처럼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들떠 있었다.

어쩌면 自然은 人間의 愚昧를 다스리는 회차리인지도 모른다.

시골길이야 비좁기로 뻥한데 들판이 길이고 길이 논밭처럼 구분이 없어 넓기만 한것을………….

그뿐이랴 물매를 마주려고 연신 실꾸러미를 풀며 그물을 집는 손들이 바쁘기만 하다.

어느새 섬마을 외할머니덕에 온 기분이다. 數갈래로 뻗힌 실을 감아 올리며 매거푼같은 풀술로 배틀을 가다듬는 情趣에 사로 잡히고 만다. 그 瞬間은 한마디로 童心 그것밖에 없었다.

과연 이러한 風物에 접했을때 都市人이 느끼는 情緒는 어떤 것이었을까?

出勤길에 쫓기는 초조함도, 눈앞이 흐려지는 煤煙에의 시달림도, 車輛의 洪水도 까맣게 잊고

주어진 空間에 한幅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衝動이 일뿐이다.

누군들 「이젤」을 걸머진 畫家나 八道江山을 노래하는 詩人이 아니라도 서투른대로 情感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짐은 매한가지가 아니겠는가.

「바다를 우선 파랗게 칠을 하고 하얀배 한척 둥둥 떠가는 모습을 애써 그릴 것이며 물결이 잔잔이 이는 파도의 생김을 빨간線으로 表示하고 나서 배위엔 나보다 더 큰 개미한마리를 그려 놓는다. 잘못된 허리의 모양이 아니라 가슴이 불룩하고 눈에 精氣가 빛나는 힘센 動物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可能하면 종이배의 흔들림을 닮고져 한다. 파도가 이는대로 따라가고 비바람이 치면 어느 이름모를 섬바위에 밀렸다가 다시 또 靜寂이 이끄는대로 흐르며, 썰물이 되면 黃金빛 모래벌에 파묻히는 自然의 順理를 記錄하고 만다.」

사실 瑞山까지만 해도 都心의 어디에서나 相似한 아스팔트며 2層洋屋은 山間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어서 도무지 農村냄새가 풍기질 않는다.

한편 생각하면 交通網이 거미줄처럼 뚫려 都市와 農村의 隔差가 좁아진만큼 生活이 理想的이고 發展된 모습이 大見하기도 하지만 浪漫과 鄉愁의 젓줄이 그림기만한 都會地사람들로서는 못내 아쉬울듯 싶었다.

그러다가 멀리 가야산의 分脈이 그런대로 끊어질듯 이어지는 韻致하며 道路를 따라 펼쳐지는 平野가 시원스럽기도 하고 마치 人工의 힘을 가해 흉내낼수 없는 天然의 綠色카펫트가 싱그러움을 더해 준다.

부채로 더위를 쫓는 백발진 노인의 수양버드나무 그들은 에어콘의 혜택보다 소중한 農村風情이 아닌가 싶다.

더 좀 記憶하고 싶다면 땀흘려 가꾼 밭에

서 참의덩이를 새며 生活의 智慧를 짜내는 원두 막주인이러던지, 쌀 한톨을 금처럼 여기는 村婦의 節約터전은 우리가 보기드문 風物로만 지나쳐서는 안될 것 같다.

勤儉·節約의 산 標本으로 삼는 것은 물론 하나의 哲學으로 되새기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XX行 버스를 타게된 날은 한바탕 여름 장마가 지나간 뒤끝이어서 언제 또 하늘이 번덕을 부릴지도 몰랐다. 自然의 交響樂을 滿喫하겠다는 期待와 조바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天安을 거쳐 溫陽, 禮山쯤 달렸을까 잿빛은 걸히고 숨털 구름이 산봉우리에 올라선다. 코발트빛 하늘이다. 눈이 부시고 마음도 淸涼해져 겨울에 눈길을 가는 心境과는 달리 긴장이 가신다. 어느 詩人の 얘기처럼 모두 여럿여럿 내게로 오는 것이었다.

洪城을 지나 瑞山, 다시 泰安터미널에 이르니 내리는 손님보다 오르는 避暑客들로 붐볐다. 暑海岸에 흠어진 海水浴場까지 交通網이 마치 낙지 발처럼 形成되어 泰安은 利用圈의 核이 되는 셈이다.

이곳에서 부터는 非鋪裝道路이다. 멀리 바다가 희끗거리고 山勢는 점점 부드럽게 문힌다. 地方의 風習이나 傍言의 特性을 건주어 봄직하다.

松林과 雜木이 우거져 숲이 터널을 이룬다. 路幅이 실제로 2車線이 채못돼 보였지만 路邊이 먼지에 쌓여 그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走行速度에 따라 車가 마치 바다를 넘겨다 볼 듯 출렁거린다. 갑자기 누가 「어머!」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陸地가 갈라지면서 左右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 온다. 安眠島와 泰安을 잇는 安眠橋를 건너는 瞬間이다.

陸地와 海上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望臺구실도 兼할 수 있을상 싶었다. 갯바람이 짹 짹하게 코끝에 얹히며 視野는 다시 가리워지고 緩慢한 내리막길은 계속된다. 南海로 向하는 느낌이다.

初行인지라 XX海水浴場으로 접어드는 샛길을 지나쳐 이웃마을 어느 한산한 구멍가게앞에 내려졌다. 가져간 準備物때문에 되돌아 나오는 버스를 탈수도 없고 目的地까지의 交通便도 마땅치 않았다. 수소문끝에 그곳 住民의 도움을 얻어 耕耘機가 끄는 짐수레를 가까스로 빌려 탈 수 있었다. 10分程度면 充分할 距離인데 倍나 時間이 걸린 것이다.

질게 우거진 海松사이로 단층슬라브 建物이 드러나 보인다. 恰似 시골國民學校의 分校같았다.

海岸을 背景으로 松林이 둘러서 하얀페인트칠이 한결 산뜻해 보인다. 旅裝을 챙기고 떠나올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身勢를 진 것이다.

기어이 그 建物を 都市의 한복판에 옮겨봐도 新鮮感이나 調和美를 再生시킬수도 없을 것이며 記憶속에서 벌써 사라진지 오래이리라.

날씨는 계속 快晴이다. 뒷뜰을 돌아 100m쯤 松林을 헤치면 海上에 이른다. 광주리를 감이친 村婦의 모습들이 눈에 띈다. 아마 고깃배를 기다리는 눈치다.

水平線에 찍힌 點 하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아낙네들은 물매를 보고 내다팔 생선을 사러 오는 것이다.

뱃머리가 드러나고 삼치, 광어 꽃게가 물기를 털며 뒤집힌다.

광주리를 이고 돌아서는 아낙네의 치맛자락에 생선비린내가 묻히고 발자욱마다 갯바람이 담긴다.

배는 보이지 않고 都市人은 모래위에 조용히 聖者의 모습을 그려본다.

詩情이 넘치는 바다風景이 아직 가시질않는데 鈍한 筆致를 안타까워 해 본들 뭘하겠는가.

모래둔덕에 取水用 탱크가 하나 서 있었다. 前에는 陸地에 묻혀 있었던 것이 海溢로 浸蝕이 됐다는 現地住民의 얘기이다. 무너져 내려 接岸地域은 殆半이 硅砂로 그 被害는 더욱 甚한것 같았다. 여기저기 海松이 뿌리를 들어 내놓고 거꾸로 처박혀 있다.

圖面上에서 얻어진 固定觀念하고는 半異한 現實임을 實感케 된다. 干拓事業으로 國土를 넓게 利用하는 것도 좋지만 버려져있는 自然을 本來 모습대로 지키고 가꾸는 作業이 더 重하게 느껴졌다.

約 7,8 km를 海岸線을 따라 거닐면 原色의 自然에 휘말리고 만다.

바닷물은 빠지고 갯마을 아이들이 갯펄을 헤적인다.

貝殼類인 손가락만한 크기의 "맛살"을 캐고 있는 것이다.

눈망울들이 빛난다. 나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바다의 神秘를 들추듯 갯펄을 파헤친다.

"맛살"을 캐러 나선다. 꿈을 찾아 나선다. 모두다 한개 점(點)으로 남는다.